

한해를 돌아보며



윤 동 윤 (체신부장관)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4년이 역사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의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저는 먼저 우리나라 정보통신계의 숙원이던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 방침이 확정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세계화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한차원 높인다는 목표아래 혁명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정보산업의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정보통신산업의 시스템적 특성과,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보통신부 발족에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발족되는 정보통신부는 관련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기능이 강화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된 만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정보통신부 발족 외에도 21세기 정보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와 학계 모두가 합심하여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확대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핵심 기반구조가 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범정부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APEC정상회담시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장관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심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고,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4위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사국에 재선되는 등 정보통신의 세계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업계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노력의 결과, 국내 정보통신수요의 확대는 물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는 정보통신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인 여러분 !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산업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협력과 경쟁을 통한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개방화·국제화의 물결은 한층 더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합심 단결하여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 세계화의 기반이 될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보통신망 구축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보통신 이용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수출유망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핵심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분의 다짐은 정보통신부의 발족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위치를 세계속에 확고히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친애하는 정보통신산업인 여러분 !

산업계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정보통신산업인 세계화추진 송년모임」에서. 94. 12. 7)